



I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¹ 추이²

가. 전체범죄³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 2017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824,876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24.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9.3% 감소된 수치로, 지난 10년 동안 20.3%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체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로 일부 소폭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전체범죄에서 교통범죄⁴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294,926건(전체범죄의 71.0% 비중)으로, 인구 10만명당 2,500.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8.1% 감소, 지난 10년 동안 6.9%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매년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1,732.6건에서 2017년 1,023.5건으로 지난 10년간 40.9%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2%에서 2017년 29.0%로 10.2%p 감소하였다.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

2 2014년 형법범 분류기준을 개편(「2015 범죄분석」)함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대한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0년치 자료에 적용, <표 1>에서 제시된 각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비 수치는 2014년 이전에 발간된 「범죄분석」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형법 범죄분류기준은 <부록 1> 참조)

3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주차사, 위험운전차사상)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

표 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⁵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⁶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8	2,189,452	4,419.5	-	1,331,112	2,686.9	-
2009	2,168,185	4,356.1	-1.4	1,460,712	2,934.7	9.2
2010	1,917,300	3,795.5	-14.1	1,279,510	2,532.9	-5.7
2011	1,902,720	3,750.4	-15.1	1,363,691	2,687.9	0.0
2012	1,934,410	3,796.8	-14.1	1,390,209	2,728.7	1.6
2013	1,996,389	3,903.7	-11.7	1,421,991	2,780.5	3.5
2014	1,933,835	3,767.6	-14.8	1,359,632	2,648.9	-1.4
2015	2,020,731	3,921.5	-11.3	1,423,258	2,762.0	2.8
2016	2,008,290	3,884.8	-12.1	1,407,320	2,722.3	1.3
2017	1,824,876	3,524.4	-20.3	1,294,926	2,500.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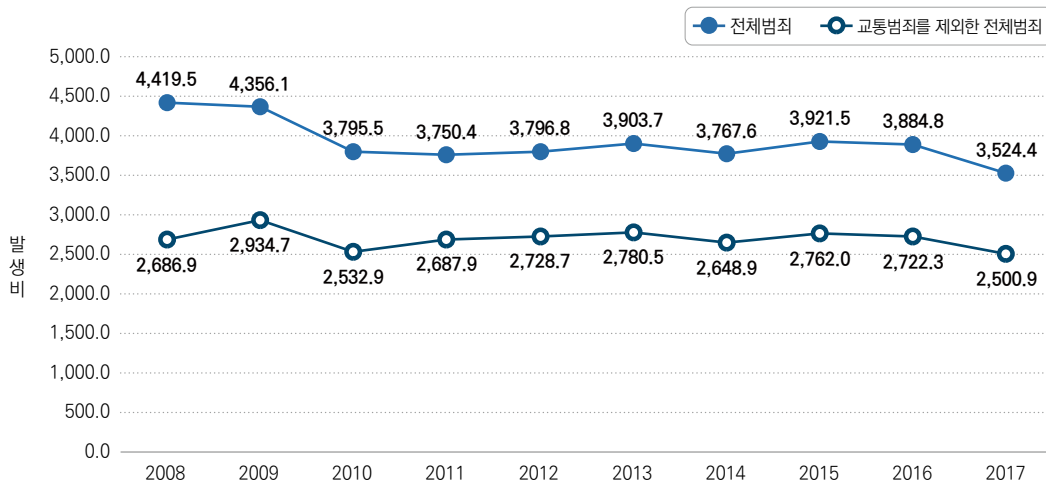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5 표에 제시된 2012년과 2013년의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범죄분석 발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한 수치

6 증감률은 기준년도인 2008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



나.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1) 형법범죄⁷와 특별법범죄

- 2017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958,865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851.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형법범죄 발생비는 2016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1.7%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형법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발생비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 2017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866,011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672.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2016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5.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특별법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2016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감소하였다.
- 2010년 이전까지는 특별법범죄의 발생비가 형법범죄의 발생비보다 더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 형법범죄에는 형법 각 장의 범죄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 포함('일러두기'의 범죄분류체계 참조)

표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비의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율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율
2008	902,501	1,821.7	-	1,286,951	2,597.8	-
2009	998,594	2,006.3	10.1	1,169,591	2,349.8	-9.5
2010	943,585	1,867.9	2.5	973,715	1,927.6	-25.8
2011	1,000,849	1,972.7	8.3	901,871	1,777.6	-31.6
2012	1,037,166	2,035.7	11.7	897,244	1,761.1	-32.2
2013	1,056,704	2,066.2	13.4	939,685	1,837.4	-29.3
2014	1,016,209	1,979.8	8.7	917,626	1,787.8	-31.2
2015	1,047,761	2,033.3	11.6	972,970	1,888.2	-27.3
2016	1,005,689	1,945.4	6.8	1,002,601	1,939.4	-25.3
2017	958,865	1,851.9	1.7	866,011	1,672.5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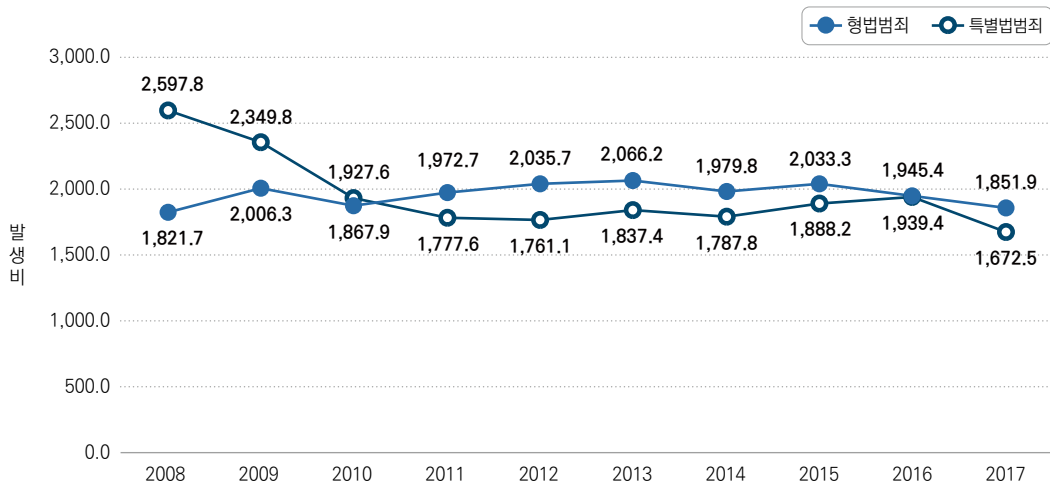


그림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2) 주요 형법범죄⁸

- 2017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542,336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047.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3.1%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재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 2017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는 36,03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6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43.5%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일부 소폭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증가하였다.
- 2017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건수는 238,789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61.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4.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2016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감소하였다.
-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재산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3.1%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14.0%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재산범죄 발생비의 증감을 보다 크게 나타냈다.

8 주요 형법범죄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형법범죄 분류체계 참조

표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율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율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율
2008	503,404	1,016.1	-	24,023	48.5	-	265,787	536.5	-
2009	562,065	1,129.3	11.1	27,014	54.3	11.9	273,973	550.4	2.6
2010	568,759	1,125.9	10.8	28,134	55.7	14.9	242,770	480.6	-10.4
2011	605,549	1,193.6	17.5	29,382	57.9	19.4	251,707	496.1	-7.5
2012	633,602	1,243.6	22.4	28,895	56.7	17.0	253,115	496.8	-7.4
2013	667,214	1,304.6	28.4	33,780	66.1	36.2	237,553	464.5	-13.4
2014	617,119	1,202.3	18.3	34,126	66.5	37.1	233,655	455.2	-15.2
2015	622,126	1,207.3	18.8	35,139	68.2	40.6	248,707	482.7	-10.0
2016	573,445	1,109.3	9.2	32,963	63.8	31.5	251,889	487.2	-9.2
2017	542,336	1,047.4	3.1	36,030	69.6	43.5	238,789	461.2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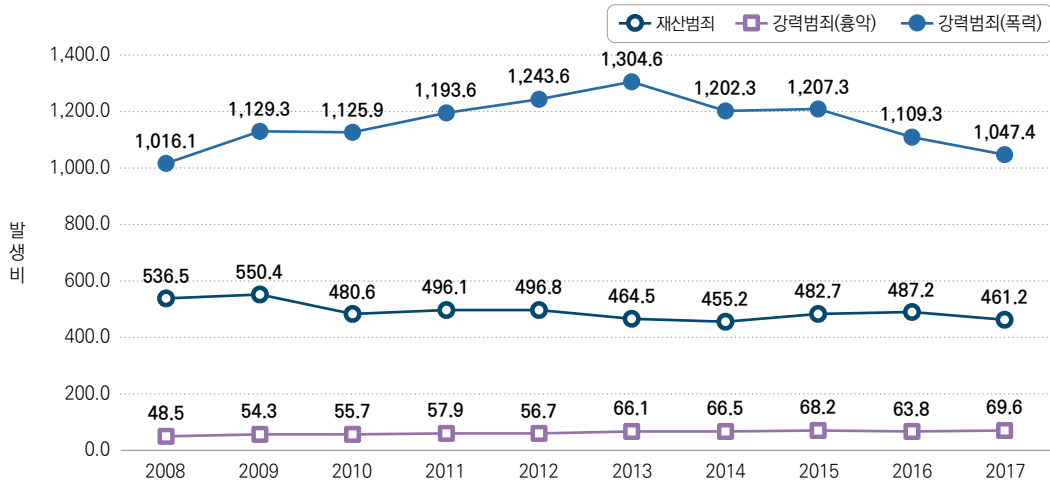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형법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3) 주요 재산범죄

- 2017년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184,355건, 인구 10만명당 356.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9.6%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1.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절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발생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017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241,642건, 인구 10만명당 466.7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12.7%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하였다.
- 절도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10년 동안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표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비의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절도			사기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8	223,264	450.7	-	205,140	414.1	-
2009	256,680	515.7	14.4	224,889	451.8	9.1
2010	268,007	530.5	17.7	205,913	407.6	-1.6
2011	281,561	555.0	23.1	226,360	446.2	7.7
2012	291,055	571.3	26.8	239,720	470.5	13.6
2013	288,757	564.6	25.3	272,664	533.2	28.8
2014	266,784	519.8	15.3	244,008	475.4	14.8
2015	246,424	478.2	6.1	257,620	499.9	20.7
2016	203,573	393.8	-12.6	250,600	484.8	17.1
2017	184,355	356.0	-21.0	241,642	466.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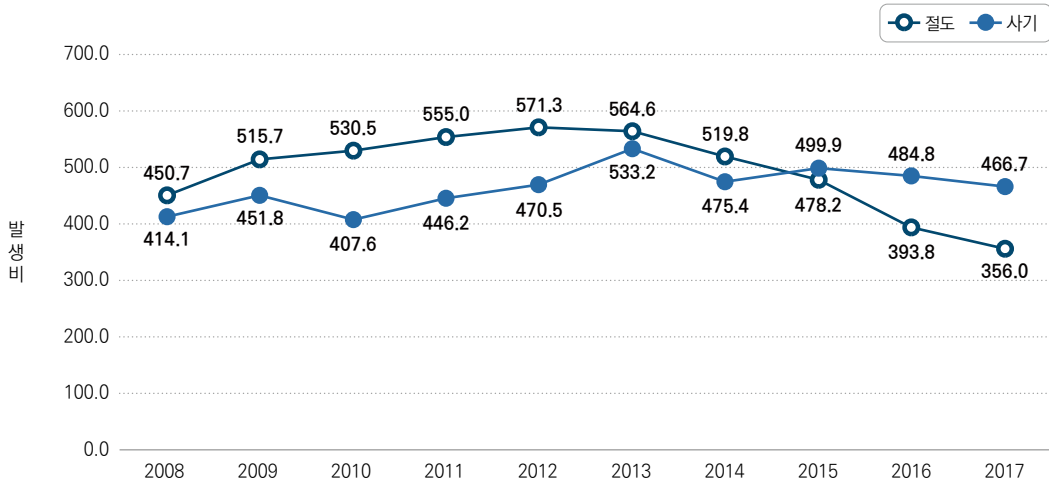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4) 주요 강력범죄

가) 살인범죄

- 2017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858건, 인구 10만명당 1.7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9.6%(0.2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6.7%(0.6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전체 858건 중 살인기수범죄가 287건(33.4%)이며, 나머지 571건(66.6%)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율은 35% 미만이었다.
-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0.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0.6건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1.4건에서 2009년에는 1.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부터 대체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살인(전체)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08	1,120	2.3	-	430	0.9	690	1.4
2009	1,390	2.8	23.5	477	1.0	913	1.8
2010	1,262	2.5	10.5	438	0.9	824	1.6
2011	1,221	2.4	6.5	410	0.8	811	1.6
2012	1,022	2.0	-11.3	402	0.8	620	1.2
2013	959	1.9	-17.1	348	0.7	611	1.2
2014	938	1.8	-19.2	366	0.7	572	1.1
2015	958	1.9	-17.8	359	0.7	599	1.2
2016	948	1.8	-18.9	344	0.7	604	1.2
2017	858	1.7	-26.7	287	0.6	57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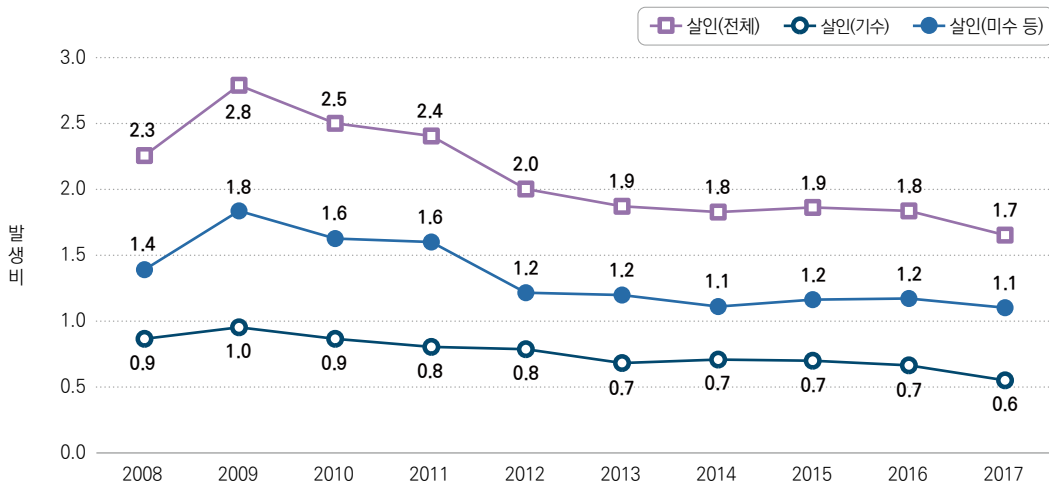


그림 5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나) 강도와 방화범죄

- 2017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는 990건, 인구 10만명당 1.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16.3%(0.4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80.4%(7.8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9.7건에서 2009년에는 12.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형법범죄 주요 유형 중 지난 10년 동안 강도 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2017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1,358건, 인구 10만명당 2.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8.2%(0.2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3.2% 감소(1.3건)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강도			방화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8	4,828	9.7	-	1,946	3.9	-
2009	6,381	12.8	31.5	1,866	3.7	-4.6
2010	4,402	8.7	-10.6	1,886	3.7	-5.0
2011	4,021	7.9	-18.7	1,972	3.9	-1.0
2012	2,626	5.2	-47.1	1,882	3.7	-6.0
2013	2,001	3.9	-59.9	1,730	3.4	-13.9
2014	1,618	3.2	-67.7	1,707	3.3	-15.3
2015	1,472	2.9	-70.7	1,646	3.2	-18.7
2016	1,181	2.3	-76.6	1,477	2.9	-27.3
2017	990	1.9	-80.4	1,358	2.6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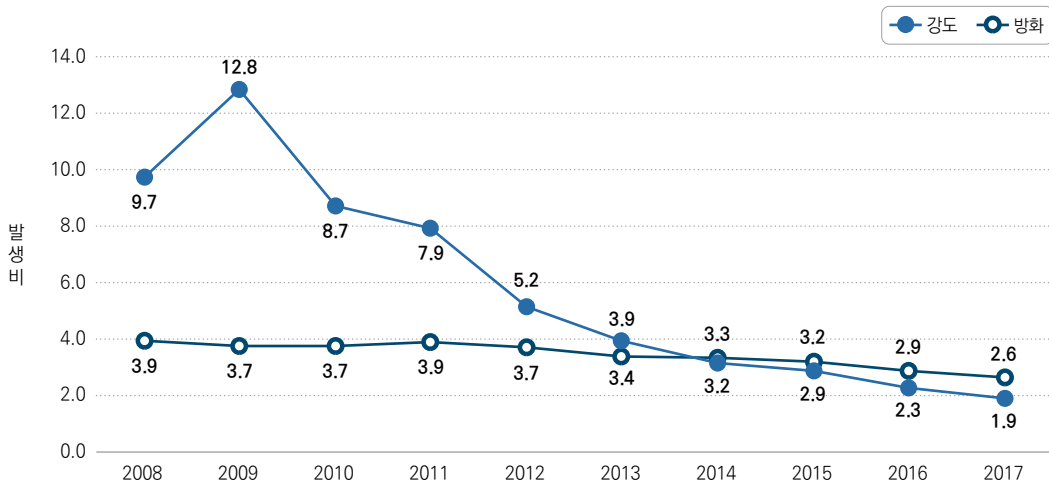


그림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다) 성폭력범죄

- 2017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2,824건, 인구 10만명당 63.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94.7%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1.9배나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08년 67.7%에서 2017년 91.1%로 24.0%p 확대되었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8	16,129	32.6	-
2009	17,377	34.9	7.2
2010	20,584	40.7	25.2
2011	22,168	43.7	34.2
2012	23,365	45.9	40.9
2013	29,090	56.9	74.7
2014	29,863	58.2	78.7
2015	31,063	60.3	85.2
2016	29,357	56.8	74.4
2017	32,824	63.4	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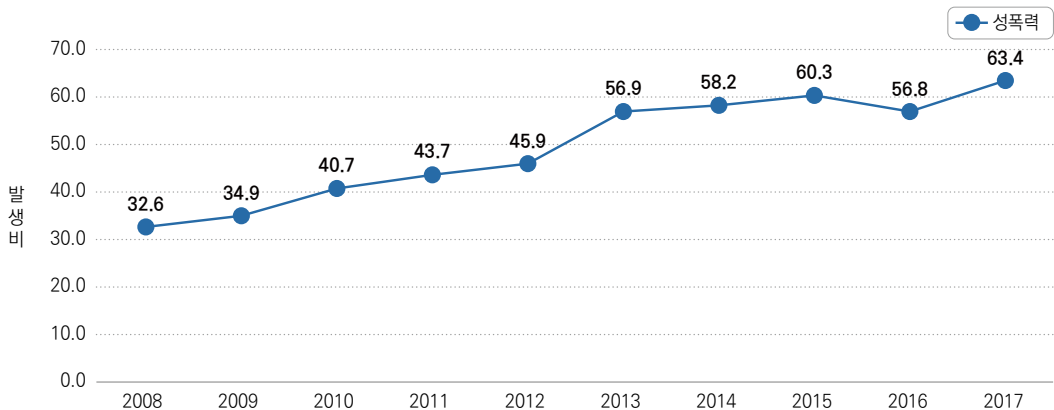


그림 7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08년 22.5%를 보였고 2009년에는 22.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6.9%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의 구성비는 2008년 37.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8.7%로,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2008년 10.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2%에 불과하였다.
-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까지 24.9%의 비중을 보였고, 2016년 17.9%로 축소되었다가 2017년에는 20.2%로 증가하였다.

-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추행이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연도	강간 ⁹	강제추행	강간등 ¹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7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9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

10 강간 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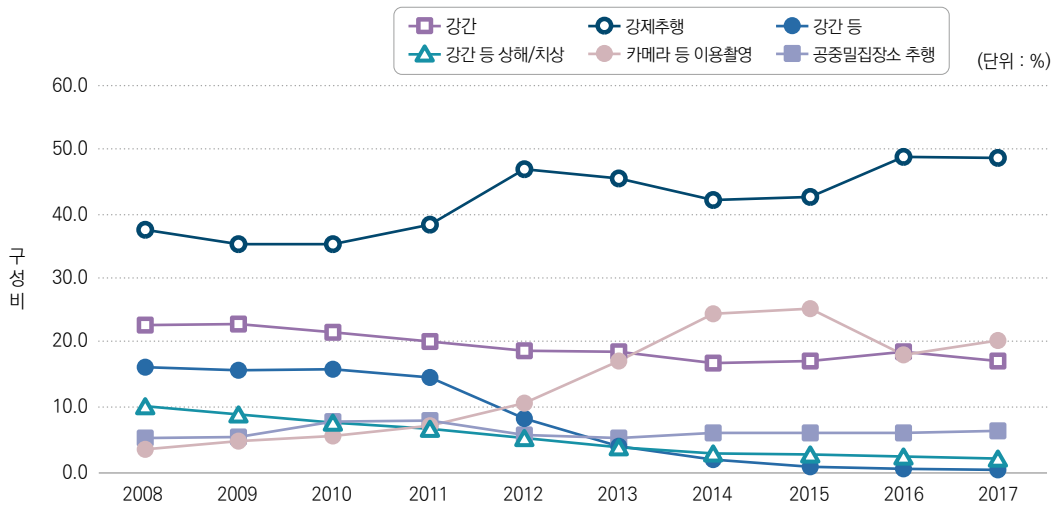


그림 8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7년)

라) 폭행/상해범죄¹¹

- 2017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는 215,717건, 인구 10만명당 416.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6.7%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8	247,641	499.9	-
2009	250,537	503.4	0.7
2010	224,300	444.0	-11.2
2011	232,229	457.7	-8.4
2012	230,635	452.7	-9.4
2013	219,805	429.8	-14.0
2014	214,605	418.1	-16.4
2015	226,543	439.6	-12.1
2016	228,710	442.4	-11.5
2017	215,717	416.6	-16.7

11 폭행/상해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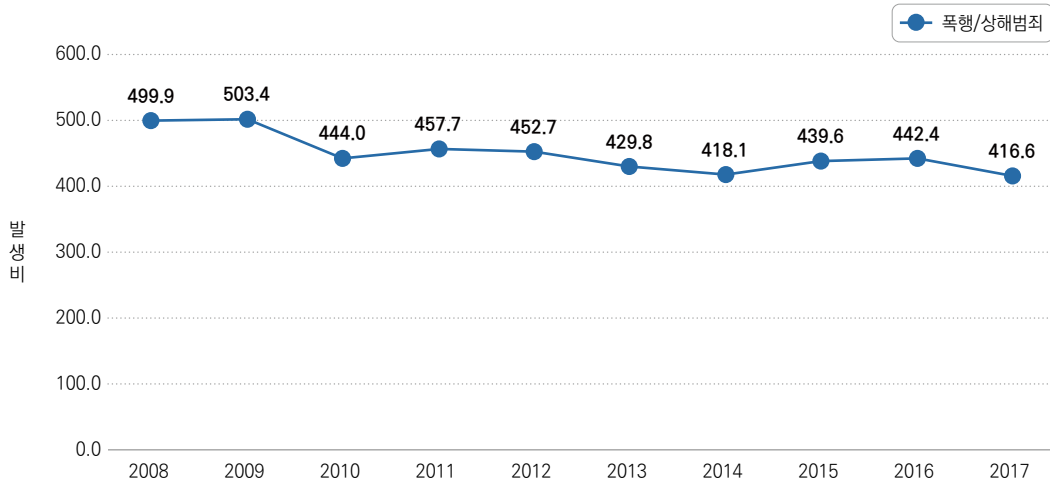


그림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5) 교통범죄¹²

- 2017년 교통범죄의 발생건수는 529,950건, 인구 10만명당 1,023.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6년 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40.9%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2017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 2008년 전체범죄 발생건수(2,189,452건)에서 교통범죄(858,340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였으나, 2017년에는 29.0%로 10.2%p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교통범죄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419.8건에서 2017년 487.4건으로 지난 10년동안 16.1% 증가하였다. 기타 교통범죄는 2008년 1,312.8건에서 2016년 536.1건으로 지난 10년동안 59.2%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교통범죄 발생비의 감소는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교통범죄 집계기준에 대해서는 [각주 4] 참조

표 10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교통범죄(전체)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08	858,340	1,732.6	-	207,953	419.8	650,387	1,312.8
2009	707,473	1,421.4	-18.0	237,248	476.7	470,225	944.7
2010	637,790	1,262.6	-27.1	242,817	480.7	394,973	781.9
2011	539,029	1,062.5	-38.7	248,595	490.0	290,434	572.5
2012	544,201	1,068.1	-38.4	283,138	555.7	261,063	512.4
2013	574,398	1,123.2	-35.2	284,012	555.3	290,386	567.8
2014	574,203	1,118.7	-35.4	298,867	582.3	275,336	536.4
2015	597,473	1,159.5	-33.1	320,249	621.5	277,224	538.0
2016	600,970	1,162.5	-32.9	307,104	594.1	293,866	568.4
2017	529,950	1,023.5	-40.9	252,383	487.4	277,567	5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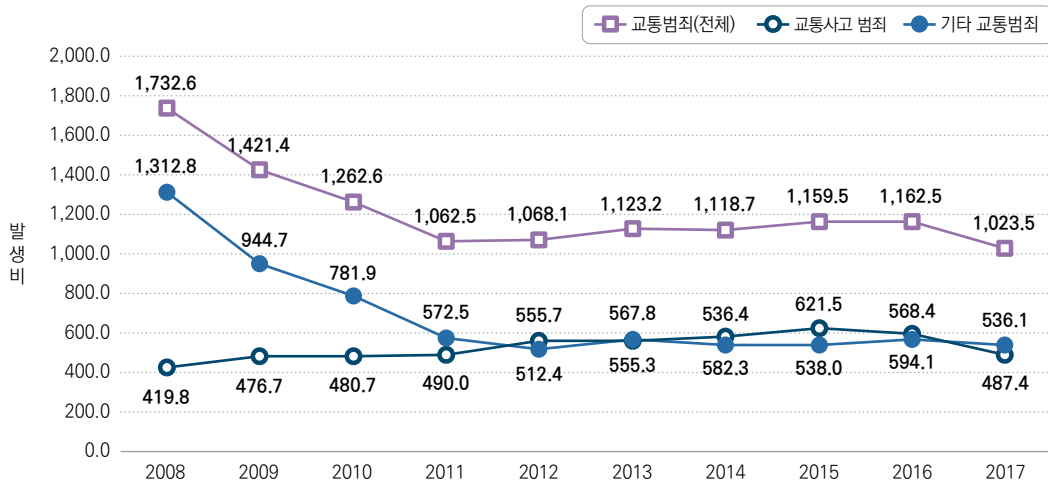


그림 10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다. 연령별 범죄발생비 추이

1) 전체범죄

-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51세~60세 범죄자의 발생비가 인구 10만명당 5,059.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5,023.8건), 31세~40세(4,588.8건), 19세~30세(3,949.2건), 61세이상(2,173.5건), 18세이하(799.5건)의 순이었다.
- 전체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와 41세~50세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한 반면에, 51세~60세,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41세~50세의 발생비가 35.5%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61세 이상의 노인범죄자의 발생비가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전체범죄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¹³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2008	1,117.6	5,261.9	6,721.4	7,786.4	5,047.4	1,432.7
2009	1,111.5	5,347.5	6,820.7	7,751.3	5,322.1	1,573.9
2010	933.6	4,116.8	4,942.7	5,889.1	4,245.4	1,329.9
2011	940.9	3,827.9	4,638.8	5,686.7	4,249.3	1,389.1
2012	1,006.9	3,905.9	4,724.4	5,834.9	5,065.7	1,733.5
2013	875.1	4,041.5	4,848.2	5,786.6	5,075.5	1,771.5
2014	786.0	3,826.6	4,761.2	5,631.3	5,235.0	1,939.1
2015	737.4	4,043.1	4,816.7	5,560.1	5,315.3	2,073.3
2016	810.6	4,242.9	5,126.8	5,637.6	5,473.5	2,215.4
2017	799.5	3,949.2	4,588.8	5,023.8	5,059.5	2,173.5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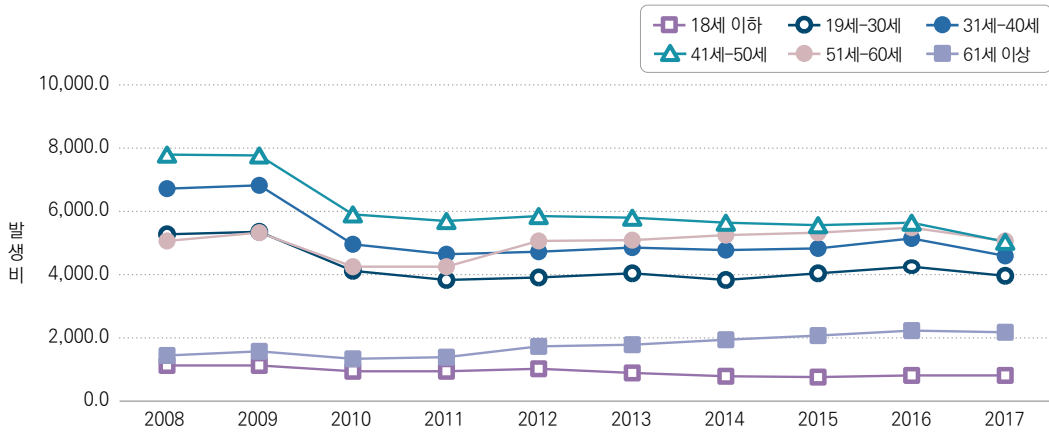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2) 소년범죄

- 소년 재산범죄¹⁴의 발생비는 2008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32.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4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에는 319.3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3.9% 감소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08년 소년인구 10만명당 29.4건에서 증가하여 2011년 38.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근 4년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1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9.6% 증가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08년 소년인구 10만명당 282.3건에서 증가하여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최근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1.2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18.1% 감소하였다.
-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소년인구 10만명당 227.3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증가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105.8건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53.5% 감소하였다.

14 소년범죄자(10세~18세 범죄자)가 범한 재산범죄를 의미, 이하 소년 강력범죄(흉악/폭력), 소년 교통범죄도 동일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홍악)의 순이었다. 2017년 강력범죄(홍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았으나, 다른 범죄군은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홍악)는 29.6% 증가하였다.

표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¹⁵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08	332.4	-	29.4	-	282.3	-	227.3	-
2009	434.8	30.8	34.7	18.1	292.2	3.5	182.6	-19.7
2010	400.7	20.5	33.7	14.7	250.5	-11.2	150.9	-33.6
2011	403.0	21.3	38.1	29.7	265.2	-6.1	136.3	-40.0
2012	442.4	33.1	34.7	18.1	310.0	9.8	115.1	-49.3
2013	430.9	29.6	34.4	17.2	215.4	-23.7	96.2	-57.7
2014	367.4	10.5	32.0	8.9	196.0	-30.6	93.7	-58.8
2015	332.9	0.1	28.2	-4.1	181.4	-35.7	89.4	-60.7
2016	352.9	6.2	35.7	21.4	207.7	-26.4	99.4	-56.3
2017	319.3	-3.9	38.1	29.6	231.2	-18.1	105.8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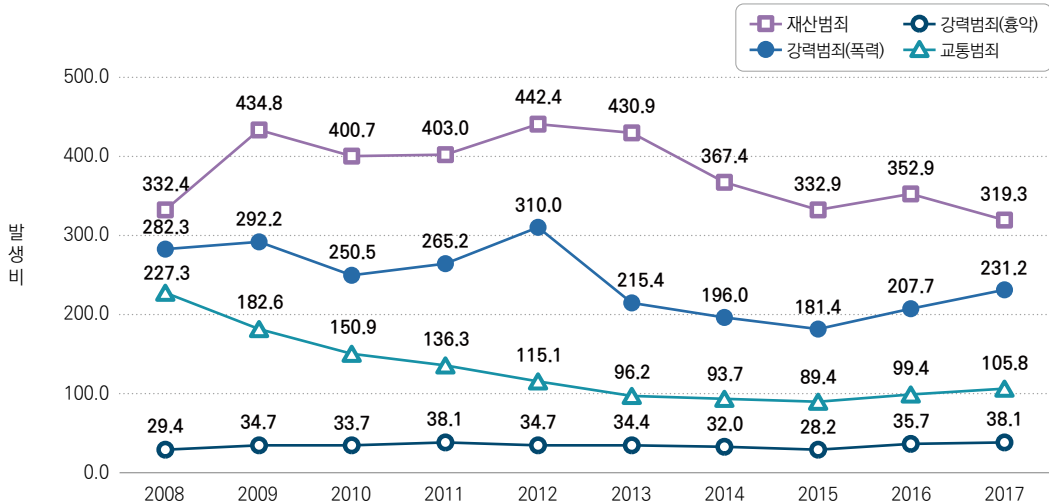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15 소년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이하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임을 유의

3) 고령자범죄

- 고령자¹⁶ 재산범죄 발생비는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89.8건에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95.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8.9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2.3%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81.1건에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90.0건이었다. 2010년 169.2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249.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241.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33.6% 증가하였다.
-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82.3건에서 대체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3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소폭 감소하여 502.6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78.0%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고령자 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교통범죄이며, 그 다음은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은 4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가 가장 낮았으나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202.3%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범죄군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범죄의 증가율이 70%~110%대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 최근 고령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2008년 5,069,273명에서 2017년 7,356,106명으로 45.1%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16 65세 이상 범죄자



표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08	189.8	-	8.9	-	181.1	-	282.3	-
2009	229.3	20.9	9.3	4.7	190.0	4.9	301.8	6.9
2010	203.6	7.3	10.0	11.6	169.2	-6.5	296.1	4.9
2011	200.5	5.7	10.7	20.4	175.7	-3.0	295.0	4.5
2012	257.8	35.8	13.4	50.2	192.1	6.1	323.0	14.4
2013	279.0	47.1	17.0	90.5	192.5	6.3	365.6	29.5
2014	314.9	66.0	19.5	119.0	216.9	19.8	444.1	57.3
2015	340.0	79.2	21.6	142.2	240.3	32.7	507.2	79.6
2016	377.4	98.9	23.4	162.6	249.9	38.0	534.0	89.1
2017	395.4	108.4	27.0	202.3	241.8	33.6	502.6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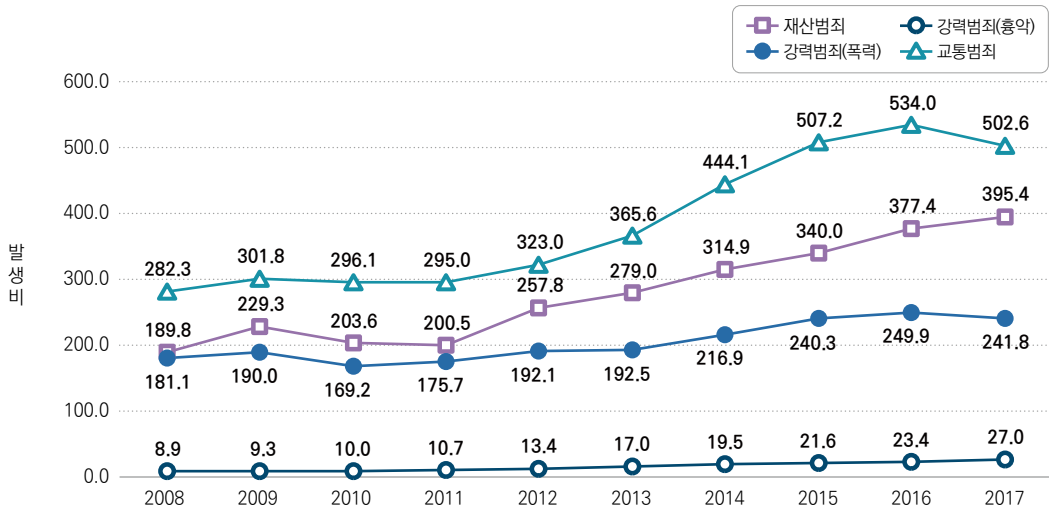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라. 지역별¹⁷ 범죄발생비 추이

- 2017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5,201.3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원도 3,799.7건, 경상남도 3,765.6건 순이었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2,279.4건 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라북도(3,086.3건), 충청남도(3,287.4건)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범죄 발생비가 20.3% 감소한 가운데, 최근 증가추이를 보이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지역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모든 시·도지역의 전체범죄 발생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4,111.7	4,277.7	3,614.0	3,763.0	3,764.9	3,874.2	3,853.7	3,856.3	3,753.3	3,575.7
부산광역시	5,001.5	5,169.4	3,959.7	4,046.3	4,131.0	4,273.2	4,203.7	4,453.1	4,117.1	3,750.0
대구광역시	4,571.8	4,255.6	4,085.8	4,142.4	4,191.0	4,119.4	4,149.9	4,330.2	3,771.8	3,324.2
인천광역시	4,376.0	4,352.6	3,521.1	3,421.0	3,664.4	3,744.9	3,578.2	3,767.5	3,723.3	3,443.3
광주광역시	4,678.0	4,641.3	4,581.5	4,735.1	4,933.8	4,959.0	4,823.0	4,560.3	4,107.8	3,731.9
대전광역시	3,718.2	3,869.1	3,572.7	3,372.4	3,166.9	3,348.7	3,294.5	3,436.5	3,413.7	3,352.2
울산광역시	4,485.2	4,637.1	4,110.7	3,693.4	3,751.7	4,091.6	3,900.1	2,915.4	2,526.6	2,279.4
경기도	4,531.7	4,183.4	3,307.4	3,429.3	3,500.4	3,583.6	3,584.0	3,776.6	4,113.3	3,572.3
강원도	4,624.8	4,499.0	4,189.9	4,027.3	4,322.5	4,238.5	3,806.9	4,081.5	4,177.2	3,799.7
충청북도	4,436.7	4,177.7	3,836.5	3,380.5	3,245.6	3,299.2	3,195.2	3,679.9	3,880.2	3,571.4
충청남도	4,094.0	4,043.8	3,869.5	3,458.5	3,837.9	3,940.8	3,911.8	3,753.7	3,542.7	3,287.4
전라북도	3,838.8	3,971.8	3,834.8	3,703.2	3,892.4	3,787.6	3,349.8	3,513.2	3,346.5	3,086.3
전라남도	4,588.3	4,729.1	4,593.4	4,331.1	4,241.6	4,538.8	3,771.1	4,174.3	3,926.3	3,407.4
경상북도	4,371.4	4,301.5	4,037.7	3,664.6	3,745.9	3,922.1	3,536.5	3,691.0	3,562.8	3,308.3
경상남도	4,638.1	4,566.9	4,428.2	4,084.2	3,768.7	3,923.4	3,641.1	4,307.5	4,246.8	3,765.6
제주도	5,544.8	4,909.7	4,976.1	4,892.9	4,983.6	5,975.0	5,307.0	5,739.2	5,829.5	5,201.3

17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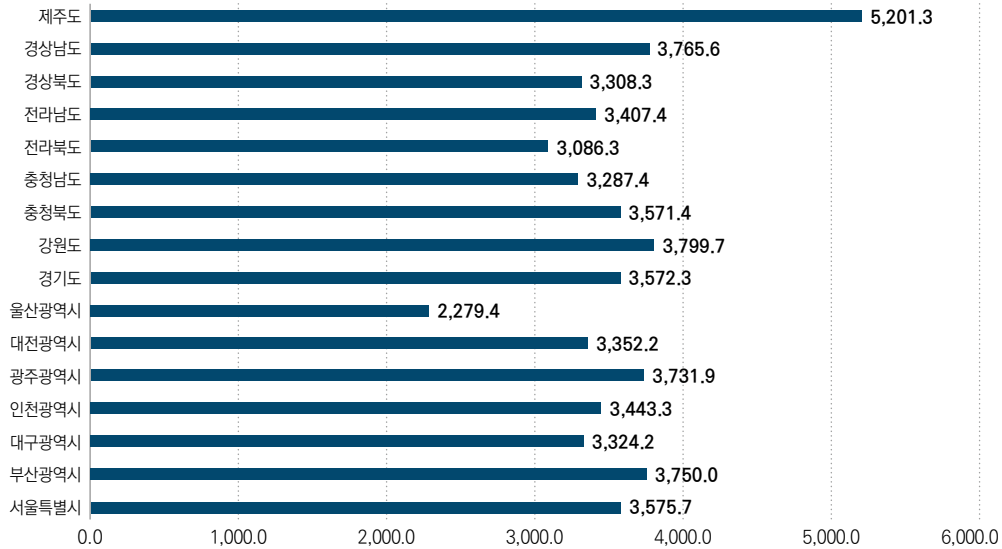


그림 14 2017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17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2,573.2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 2,173.5건, 부산광역시 2,152.9건 순이었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1,115.8건 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라남도(1,550.9건), 전라북도(1,566.0건)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증가하였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감소하였다.
- 제주도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1,886.1	2,106.7	2,046.7	2,214.3	2,317.6	2,332.5	2,347.2	2,367.3	2,280.3	2,173.5
부산광역시	2,002.2	2,545.3	2,153.6	2,354.1	2,387.1	2,476.3	2,309.0	2,326.4	2,199.6	2,152.9
대구광역시	1,764.5	1,789.6	1,886.5	2,046.4	2,114.2	2,082.3	1,964.5	2,041.3	1,827.2	1,738.0
인천광역시	1,636.4	1,727.9	1,606.0	1,658.5	1,775.6	1,885.4	1,775.3	1,905.7	1,953.2	1,872.6
광주광역시	2,481.1	2,468.1	2,379.1	2,522.9	2,589.5	2,533.4	2,407.6	2,255.5	1,943.6	1,801.4
대전광역시	1,695.7	2,007.0	1,771.3	2,024.9	2,035.1	2,100.7	2,025.8	2,120.3	2,000.8	1,917.1
울산광역시	1,952.7	2,137.7	1,898.8	1,896.4	1,925.4	2,031.1	1,971.5	1,264.5	1,184.8	1,115.8
경기도	1,718.8	1,958.9	1,634.7	1,793.7	1,853.4	1,852.7	1,824.6	1,911.9	1,840.3	1,751.4
강원도	1,920.9	2,056.0	2,126.9	2,061.6	2,135.9	2,059.9	1,799.0	1,860.0	1,890.9	1,824.5
충청북도	1,712.2	1,640.5	1,627.6	1,841.1	1,666.4	1,693.7	1,638.3	1,852.5	1,800.9	1,732.5
충청남도	1,675.3	1,723.9	1,669.0	1,747.3	2,012.1	2,026.0	1,953.2	1,810.2	1,712.0	1,660.0
전라북도	1,645.1	1,792.1	1,789.0	1,808.2	1,847.2	1,943.0	1,654.8	1,826.3	1,702.0	1,566.0
전라남도	2,076.9	2,183.2	2,049.0	1,839.5	1,912.3	1,964.5	1,726.5	1,819.3	1,706.2	1,550.9
경상북도	1,784.0	1,866.0	1,721.6	1,668.3	1,714.3	1,804.9	1,629.2	1,669.6	1,661.7	1,578.9
경상남도	1,649.0	1,779.3	1,889.8	1,853.3	1,882.1	1,921.8	1,819.9	2,129.3	2,006.1	1,906.8
제주도	2,565.6	2,580.6	2,635.6	2,888.3	2,766.3	3,044.4	2,783.4	2,772.9	2,776.4	2,5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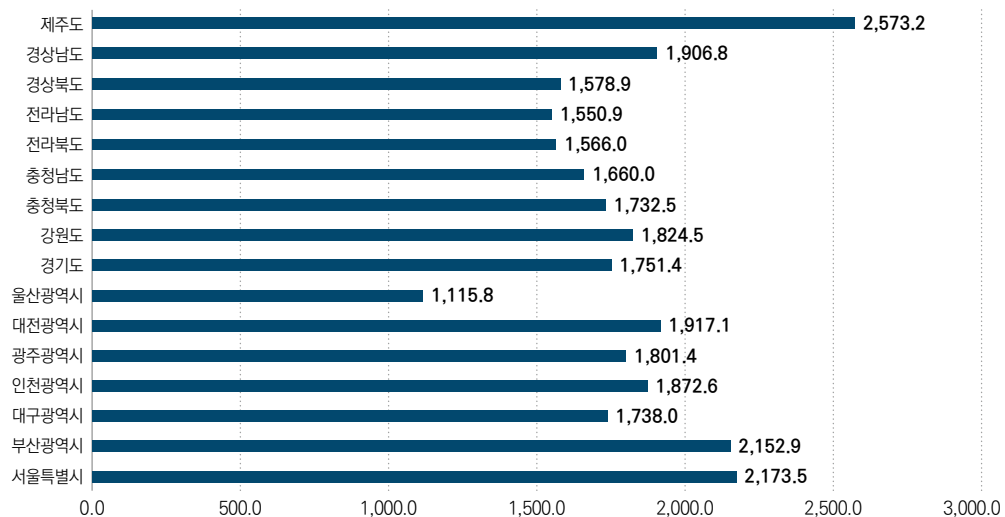


그림 15 2017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 범죄자 특성 추이

가. 성(性)

- 전체범죄의 경우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6.3%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8.8%로 지난 10년 동안 2.5%p 증가하였다.
-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08년 19.6%에서 2017년에는 21.3%로 지난 10년 동안 1.7%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흉악)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08년 3.6%였으나 2017년에는 3.6%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의 여성범죄자 비중은 큰 변동 없이 0.05%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08년 17.0%에서 2017년에는 16.7%로 지난 10년 동안 0.3%p 감소하였다.
-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08년 10.9%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0%로 지난 10년 동안 4.1%p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에서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폭력)의 여성범죄자 비중은 감소하였고,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2008	16.3	19.6	3.6	17.0	10.9
2009	17.3	20.4	3.8	16.6	11.5
2010	17.2	20.5	3.1	15.9	11.9
2011	17.7	20.7	4.3	15.6	12.9
2012	18.0	20.4	3.9	16.2	13.3
2013	17.6	20.0	3.5	15.7	13.5
2014	18.2	20.4	3.3	15.5	14.4
2015	18.4	20.6	3.4	16.0	14.8
2016	18.2	21.1	3.4	16.3	14.8
2017	18.8	21.3	3.6	16.7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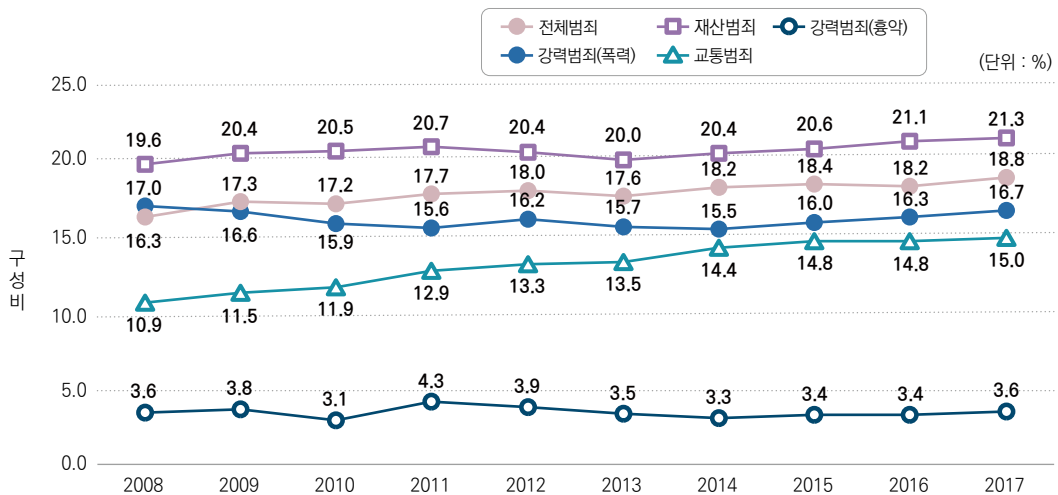


그림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08년~2017년)



나. 연령

- 2017년 전체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세~50세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1세~60세(23.4%), 31세~40세(19.0%), 19세~30세(17.5%), 61세 이상(11.8%), 18세 이하(4.0%) 등의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1%p, 7.5%p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31세~40세의 비중이 7.3%p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표 17 전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08	126,213 (5.7)	451,151 (20.4)	583,106 (26.3)	664,332 (30.0)	294,096 (13.3)	95,113 (4.3)	2,214,011
2009	123,347 (5.5)	454,054 (20.1)	577,591 (25.5)	671,645 (29.7)	325,832 (14.4)	109,067 (4.8)	2,261,536
2010	101,596 (5.8)	346,228 (19.6)	418,023 (23.7)	521,655 (29.6)	279,988 (15.9)	97,256 (5.5)	1,764,746
2011	100,032 (5.8)	317,562 (18.6)	387,916 (22.7)	501,839 (29.3)	299,009 (17.5)	105,329 (6.2)	1,711,687
2012	104,780 (5.7)	318,770 (17.3)	389,563 (21.1)	515,006 (27.9)	379,735 (20.6)	135,435 (7.3)	1,843,289
2013	88,731 (4.8)	325,454 (17.5)	395,825 (21.3)	510,441 (27.4)	393,956 (21.2)	145,290 (7.8)	1,859,697
2014	77,594 (4.2)	306,597 (16.6)	381,442 (20.6)	501,527 (27.1)	418,590 (22.6)	165,400 (8.9)	1,851,150
2015	71,035 (3.8)	324,976 (17.2)	376,218 (19.9)	496,000 (26.3)	435,511 (23.1)	185,219 (9.8)	1,888,959
2016	76,000 (3.9)	341,896 (17.3)	393,251 (19.9)	498,953 (25.3)	454,454 (23.0)	209,101 (10.6)	1,973,655
2017	72,759 (4.0)	318,645 (17.5)	345,590 (19.0)	441,295 (24.3)	424,809 (23.4)	215,139 (11.8)	1,81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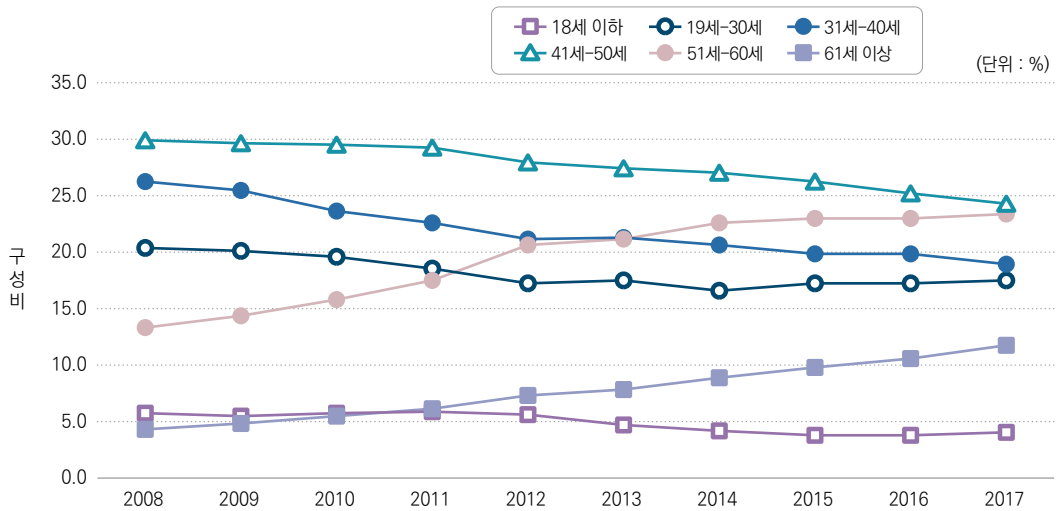


그림 17 전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 2017년 재산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세~50세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1세~60세(22.8%), 19세~30세(17.8%), 31세~40세(16.9%), 61세 이상(12.2%), 18세 이하(7.2%) 등의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 19세~3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p, 7.1%p, 1.8%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7%p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08	37,540 (11.4)	52,941 (16.0)	76,958 (23.3)	98,108 (29.7)	47,650 (14.4)	16,786 (5.1)	329,983
2009	48,249 (12.4)	63,303 (16.2)	86,266 (22.1)	112,222 (28.7)	59,030 (15.1)	21,439 (5.5)	390,509
2010	43,599 (12.9)	54,274 (16.1)	69,508 (20.6)	94,920 (28.1)	54,993 (16.3)	19,907 (5.9)	337,201
2011	42,851 (12.7)	54,825 (16.3)	68,597 (20.4)	92,766 (27.5)	57,361 (17.0)	20,567 (6.1)	336,967
2012	46,039 (11.4)	62,704 (15.6)	77,294 (19.2)	107,128 (26.6)	81,627 (20.2)	28,387 (7.0)	403,179
2013	43,698 (10.3)	71,819 (16.9)	81,606 (19.2)	109,350 (25.8)	86,049 (20.3)	31,452 (7.4)	423,974
2014	36,271 (9.0)	64,882 (16.1)	74,472 (18.4)	104,596 (25.9)	88,621 (21.9)	35,211 (8.7)	404,053
2015	32,068 (7.7)	74,537 (17.9)	75,125 (18.0)	103,263 (24.8)	92,454 (22.2)	39,168 (9.4)	416,615
2016	33,088 (7.9)	73,990 (17.6)	73,600 (17.5)	99,612 (23.7)	94,609 (22.5)	45,675 (10.9)	420,574
2017	29,056 (7.2)	72,242 (17.8)	68,547 (16.9)	93,332 (23.1)	92,089 (22.8)	49,502 (12.2)	404,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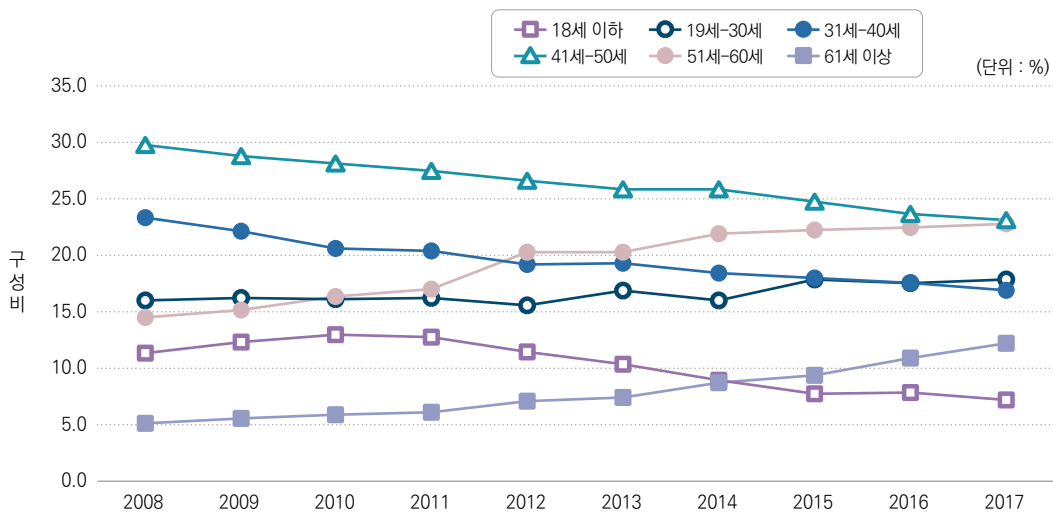


그림 18 재산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 2017년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30세가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40세(20.1%), 41세~50세(18.5%), 51세~60세(15.2%), 18세 이하(9.5%), 61세 이상(8.7%) 등의 순이다. 다른 범죄군에 비해 18세 이하와 19세~30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19 강력범죄(흉악)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08	3,316 (16.4)	5,186 (25.6)	4,772 (23.6)	4,429 (21.9)	1,771 (8.7)	778 (3.8)	20,252
2009	3,847 (16.7)	5,971 (25.9)	5,441 (23.6)	4,821 (20.9)	2,127 (9.2)	833 (3.6)	23,040
2010	3,665 (15.9)	5,970 (25.9)	5,215 (22.6)	4,947 (21.5)	2,327 (10.1)	935 (4.1)	23,059
2011	4,049 (15.9)	6,665 (26.2)	5,561 (21.9)	5,318 (20.9)	2,713 (10.7)	1,098 (4.3)	25,404
2012	3,609 (13.5)	7,282 (27.3)	5,720 (21.5)	5,378 (20.2)	3,316 (12.4)	1,339 (5.0)	26,644
2013	3,488 (11.8)	7,901 (26.8)	6,351 (21.6)	5,984 (20.3)	3,967 (13.5)	1,775 (6.0)	29,466
2014	3,158 (10.6)	7,875 (26.5)	6,151 (20.7)	6,230 (21.0)	4,288 (14.4)	1,993 (6.7)	29,695
2015	2,713 (8.7)	8,414 (27.0)	6,689 (21.4)	6,382 (20.5)	4,671 (15.0)	2,321 (7.4)	31,190
2016	3,343 (10.1)	8,825 (26.6)	6,812 (20.5)	6,456 (19.4)	5,117 (15.4)	2,679 (8.1)	33,232
2017	3,463 (9.5)	10,157 (28.0)	7,281 (20.1)	6,704 (18.5)	5,516 (15.2)	3,169 (8.7)	36,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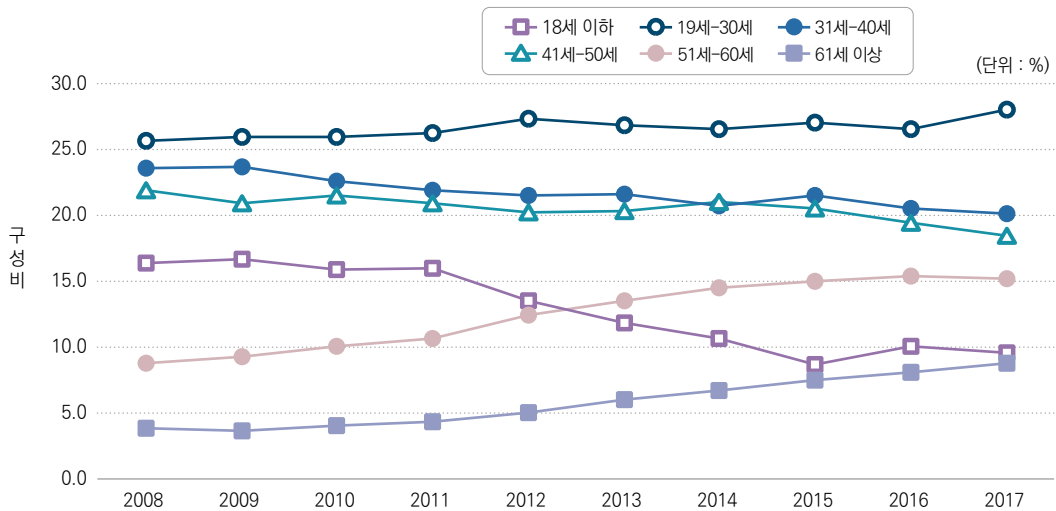


그림 19 강력범죄(흉악)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 2017년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세~50세가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9세~30세(21.6%), 51세~60세(20.7%), 31세~40세(18.9%), 61세 이상(9.6%), 18세 이하(6.4%) 등의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p, 5.6%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5%p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0 강력범죄(폭력)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08	31,878 (7.9)	89,236 (22.0)	96,076 (23.7)	119,151 (29.4)	52,532 (13.0)	16,471 (4.1)	405,344
2009	32,423 (8.0)	89,712 (22.1)	93,798 (23.1)	116,468 (28.7)	55,854 (13.7)	18,038 (4.4)	406,293
2010	27,264 (7.8)	76,328 (21.9)	77,225 (22.1)	99,616 (28.5)	51,644 (14.8)	16,888 (4.8)	348,965
2011	28,193 (8.2)	73,619 (21.4)	73,434 (21.3)	95,636 (27.8)	55,469 (16.1)	18,227 (5.3)	344,578
2012	32,261 (8.7)	78,448 (21.1)	74,378 (20.0)	96,121 (25.9)	68,069 (18.3)	22,213 (6.0)	371,490
2013	21,840 (6.4)	70,835 (20.8)	70,049 (20.5)	89,180 (26.1)	66,890 (19.6)	22,400 (6.6)	341,194
2014	19,352 (5.9)	66,930 (20.3)	65,792 (20.0)	83,952 (25.5)	68,775 (20.9)	24,581 (7.5)	329,382
2015	17,473 (5.1)	69,846 (20.5)	66,854 (19.7)	85,878 (25.2)	72,091 (21.2)	27,975 (8.2)	340,117
2016	19,476 (5.6)	71,847 (20.7)	67,700 (19.5)	83,495 (24.1)	73,172 (21.1)	31,172 (9.0)	346,862
2017	21,043 (6.4)	71,206 (21.6)	62,248 (18.9)	75,518 (22.9)	68,168 (20.7)	31,724 (9.6)	32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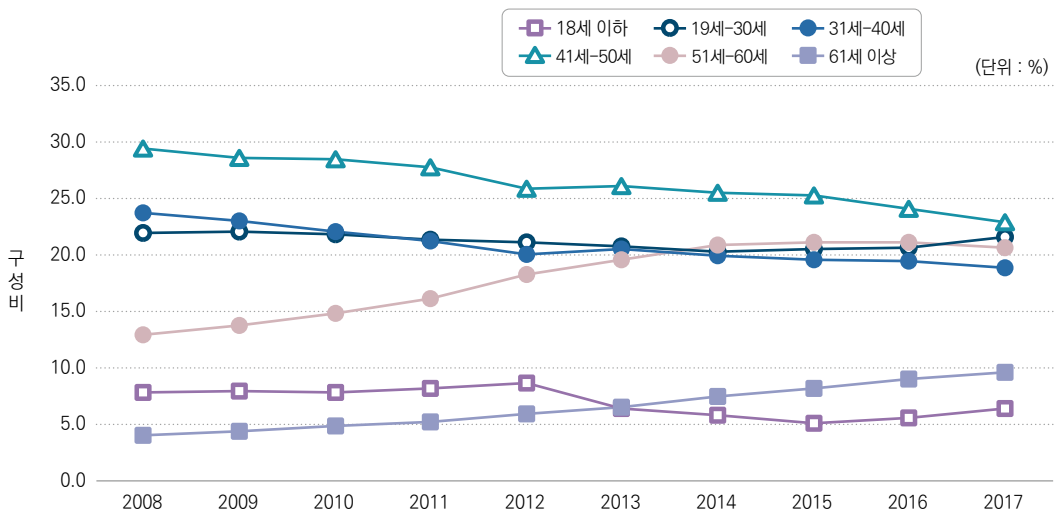


그림 20 강력범죄(폭력)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 2017년 교통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세~50세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1세~60세(22.4%), 31세~40세(21.6%), 19세~30세(17.2%), 61세 이상(12.6%), 18세 이하(1.9%) 등의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5%p, 9.3%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31세~40세의 비중이 8.5%p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51세~60세, 61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큰 구성비의 증가를 보인 범죄는 교통범죄로, 2008년에 비하여 각각 10.5%p, 9.3%p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31세~40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구성비의 감소를 보인 범죄는 교통범죄로, 2008년에 비하여 8.5%p 감소하였다.
- 지난 10년간 4가지 범죄군 모두 51세~60세와 61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표 21 교통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08	25,671 (3.0)	185,312 (21.9)	254,390 (30.1)	251,616 (29.8)	100,390 (11.9)	27,405 (3.2)	844,784
2009	20,260 (2.9)	142,638 (20.3)	196,917 (28.1)	212,554 (30.3)	98,394 (14.0)	30,258 (4.3)	701,021
2010	16,421 (2.7)	122,489 (20.3)	160,085 (26.5)	181,781 (30.1)	92,423 (15.3)	30,940 (5.1)	604,139
2011	14,494 (2.8)	103,142 (20.0)	131,758 (25.5)	149,589 (29.0)	85,331 (16.5)	31,671 (6.1)	515,985
2012	11,981 (2.3)	93,012 (18.1)	125,262 (24.4)	144,145 (28.1)	100,176 (19.5)	38,643 (7.5)	513,219
2013	9,754 (1.8)	94,387 (17.6)	133,254 (24.8)	149,459 (27.8)	107,361 (20.0)	43,322 (8.1)	537,537
2014	9,254 (1.7)	89,780 (16.8)	126,995 (23.8)	144,582 (27.1)	113,215 (21.2)	49,726 (9.3)	533,552
2015	8,610 (1.6)	91,578 (16.7)	124,187 (22.6)	144,868 (26.4)	121,835 (22.2)	58,218 (10.6)	549,296
2016	9,319 (1.7)	93,396 (16.8)	123,352 (22.2)	141,683 (25.5)	123,346 (22.2)	64,232 (11.6)	555,328
2017	9,626 (1.9)	88,174 (17.2)	110,592 (21.6)	124,478 (24.3)	114,689 (22.4)	64,439 (12.6)	51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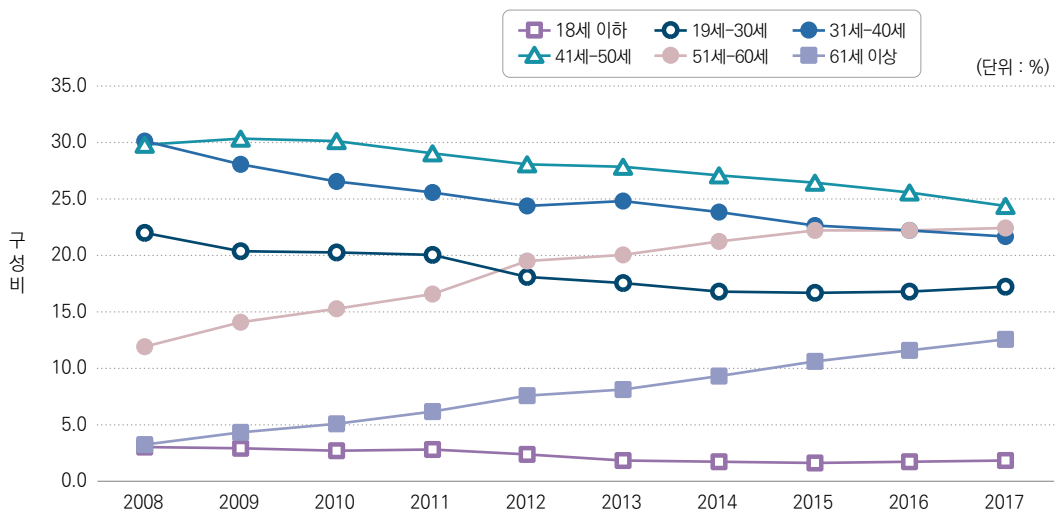


그림 21 교통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08년~2017년)



다. 전과

- 2017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811,653명으로 전체의 4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중은 2008년 50.4%에서 2017년 43.6%로 지난 10년동안 6.8%p 감소하였다.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중은 2017년 21.4%로 지난 10년간 11.7%p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비중이 18.5%p 증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2 전체범죄의 전과자 비율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2008	744,741(33.1)	1,131,801(50.4)	370,288(16.5)	2,246,830
2009	756,817(33.1)	1,108,708(48.4)	422,898(18.5)	2,288,423
2010	494,241(27.8)	899,714(50.5)	386,962(21.7)	1,780,917
2011	434,904(25.2)	817,068(47.3)	475,204(27.5)	1,727,176
2012	441,898(23.6)	865,724(46.3)	561,481(30.0)	1,869,103
2013	419,384(22.3)	879,679(46.7)	582,891(31.0)	1,881,954
2014	411,192(21.9)	852,244(45.3)	616,112(32.8)	1,879,548
2015	416,301(21.4)	859,477(44.1)	673,188(34.5)	1,948,966
2016	437,154(21.6)	897,996(44.5)	685,046(33.9)	2,020,196
2017	398,684(21.4)	811,653(43.6)	651,459(35.0)	1,861,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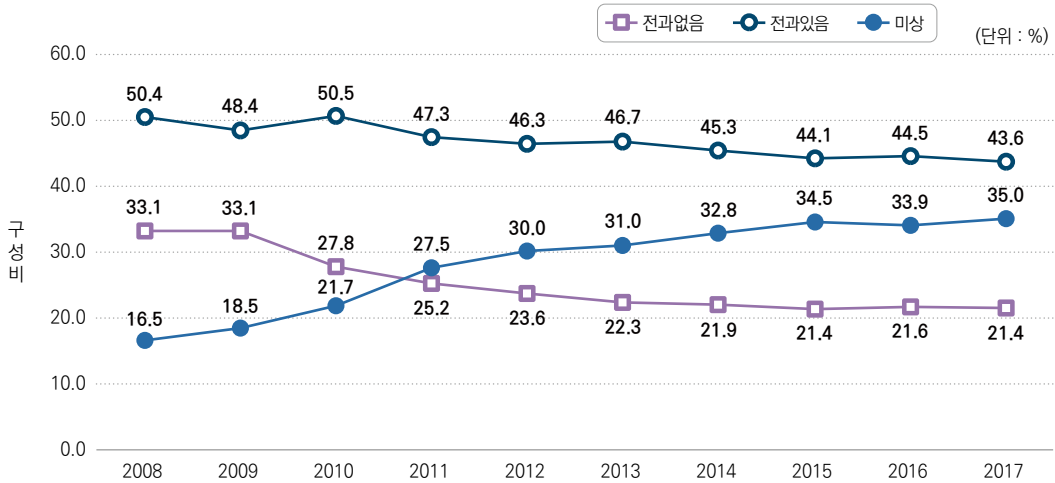


그림 22 전체범죄의 전과자 비율 추이(2008년~2017년)

- 2017년 검거된 재산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3.0%로 지난 10년간 2.9%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0.1%로 지난 10년간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8.3%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6.9%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7년 검거된 강력범죄자(흉악)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6.3%로 지난 10년간 8.8%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5.8%로 지난 10년간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2.4%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17.9%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7년 검거된 강력범죄자(폭력)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4.1%로 지난 10년간 9.4%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19.0%로 지난 10년간 6.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6.2%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6.9%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7년 검거된 교통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6.3%로 지난 10년간 11.5%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3.6%로 지난 10년간 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20.3%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0.2%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자 비율 추이(2008~2017년)

(단위 :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2008	25.5	45.9	28.6	29.4	55.1	15.5	25.8	53.5	20.7	32.3	57.8	9.9
2009	25.3	44.5	30.2	28.7	53.6	17.7	24.6	53.1	22.3	30.9	54.3	14.8
2010	23.4	46.1	30.5	28.3	51.7	20.0	22.9	52.4	24.7	29.2	53.7	17.2
2011	22.9	44.7	32.5	28.6	52.3	19.1	21.8	50.2	28.0	28.7	49.7	21.5
2012	20.5	42.1	37.4	29.9	52.4	17.6	22.5	50.4	27.1	27.7	48.7	23.5
2013	18.4	42.6	39.0	32.6	53.6	13.8	20.3	50.8	28.9	26.7	49.9	23.4
2014	19.0	42.6	38.5	34.2	52.3	13.5	19.6	48.3	32.1	26.0	48.0	26.0
2015	19.5	42.7	37.8	34.9	50.5	14.6	19.4	46.6	34.0	24.5	46.5	29.0
2016	20.0	42.9	37.1	35.3	49.1	15.6	19.1	45.4	35.5	23.2	46.7	30.0
2017	20.1	43.0	36.9	35.8	46.3	17.9	19.0	44.1	36.9	23.6	46.3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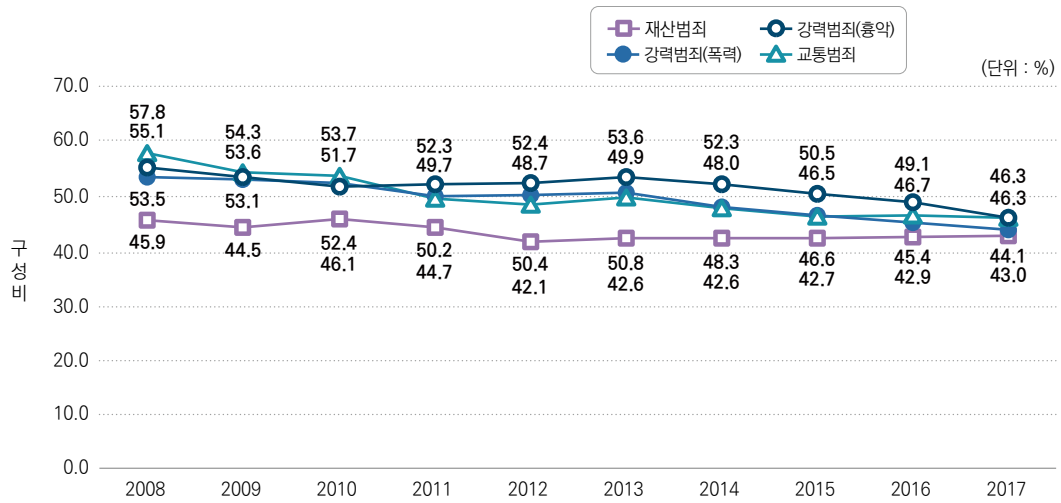


그림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자 비율 추이(2008년~2017년)